

가나 릭비(Ligbi) 종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가나의 반다(Banda) 지역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AFR(Africa Field Research) 6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AFR(Africa Field Research) 6기 훈련팀에서 2009년 7월 5일 ~ 2009년 7월 23일까지 가나의 반다 지역을 중심으로 릭비 종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목 차

I. 조사설계

II. 들어가는 말

III. 립비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2. 정치분야
3. 사회분야
4. 경제분야
5. 생활분야
6. 문화분야
7. 교육분야
8. 종교분야
9. 기독교 상황

IV. 가나 반다 지역의 현재 이슈들

V. 립비 종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2. 립비 종족 선교의 방해요소
3. 립비 종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4. 립비 종족의 선교전략 제언

VI. 나가는 말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서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코트디부아르, 토고, 부르키나파소와 접해 있는 가나는 15세기부터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로 금을 갈취 당하였으며 노예무역의 희생양이 되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발전된 국가로 인식되지만 약 70년간 영국의 식민지로 황금해안(Gold coast)이라 불리며 주권을 서구에 넘겨주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본 조사팀이 조사한 릭비(Ligbi) 종족은 가나 중서부 사반나(대초원)에 반다라는 이름으로 베마, 캄카 싸시, 멘지, 웬치, 브롱하니, 봉가시, 바우, 보피 등을 포함하는 지역에 17,000명 가량이 살고 있다. 과거에 이슬람 확산을 위해 이 곳에 사는 반다 릭비 종족을 코트디부아르(Republic of Cote d'Ivoire, Ivory Coast)로 이주시켜 현재 가나의 반다(Banda) 지경의 릭비 종족의 인구는 6,400명으로 조사되었다. 코트디부아르에 사는 릭비 종족은 그나마 이름이라도 알려져 있지만 가나에 사는 릭비 종족은 이름도 들어보기 힘들 만큼의 소수종족이다.

릭비 종족은 대부분이 이슬람의 가장 큰 종파이자 정통파이며 무슬림 전체 중 90%를 차지하는 순니파이다. 전방개척지수에서 복음주의자 비율이 0-5% 미만으로 박해지역이 아닌 경우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F2에 속한다. 가나 중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반다 릭비 종족은 각 지역마다 공동체가 하나씩 존재하며 타 종족과 타 지역 간의 교류가 거의 없는 폐쇄된 생활을 하고 있다.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순니파 이슬람 교단의 우두머리인 칼리프 이맘이 공동체를 총괄적으로 다스린다. 이슬람을 전통처럼 지켜온 릭비 종족은 오랜 시간 복음화된 나파나 종족과 같은 반다 지역에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정도로 강력한 이슬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나파나(Nafana) 종족이 쓰고 있는 나파나어(語)로 번역된 성경이 존재하지만 릭비 종족이 쓰고 있는 조고어(語)로 된 성경이 없다.

발전 정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 문화적 교류 없이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슬람 집단이 복음을 듣게 될 가능성이 전무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릭비 종족을 향한 시급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본 조사팀은 유명무실한 기독교 세습 실태와 더불어 정치, 사회, 생활, 경제, 교육 분야에서 총체적 선교 전략을 제시하고 이슬람이라는 독특한 종교 내에서 집단적 회심을 유도할 수 있는 선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의 목적

- 1) 가나의 미전도 종족 중 하나인 릭비 종족은 소외되어 있고 그 수가 매우 적어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반다 지역 내의 릭비 종족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기술한다.
- 2) 릭비 종족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낸다.
- 3) 릭비 종족의 상황을 바탕으로 총체적 선교의 필요성을 밝힌다. 현장 선교사와 중보 기도자를 동원한다.

3. 조사지역

가나 중서부의 반다(Banda) 지역

가나의 릭비 종족은 대부분이 가나의 중서부에 살고 있다. 그 중 반다 지역 내에는 아직 도시화 되지 않은 릭비 종족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반다 지역 내의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6개의 마을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4. 조사대상

반다(Banda) 지역에 사는 릭비(Ligbi) 종족

원래 릭비 종족은 조고어를 사용해 조고 족(族)이라 불려졌지만 다른 외부인들이 그들을 릭비 종족으로 불러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다. 반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반다 릭비 종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5. 현장조사기간: 2009년 7월 6일 ~ 2009년 7월 24일²

²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7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9/07/07	반다(Banda)	마을 주민	관찰 조사
2009/07/08	싸시(Sasi)	학교 교장, 선생님	인터뷰, 관찰조사
2009/07/09	보피에(Bofie)	이맘, 마을 주민	인터뷰 관찰조사
2009/07/10	베마(Bema)	이맘, 원로	인터뷰 관찰조사
2009/07/11	캉카(Kangka)	마을 주민	관찰 조사

6.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가나 현지 조사팀³ 7명

	이름	학부(학번)	역 할
1	김성익	경영경제학부 (08)	디렉터, 문서자료부장
2	모요셉	국제어문학부 (08)	미디어부장
3	이지영	경영경제학부 (08)	문서자료부원
4	김현덕	생명식품공학부 (07)	미디어부원
5	최은혜	글로벌리더십학부 (09)	문서자료부원
6	노용태	글로벌리더십학부 (09)	예배부장
7	이연정	생명식품과학부 (07)	총무부장

2) 통역자 2명

	이름	소 속	역 할
1	김현덕	한동대학교	영어 통역
2	임철순	Ghana International school의 현지 선교사	영어 통역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³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9개 지역조사팀 중 AFR(Afric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리서치전문가과정(Research Expert Course)과 리서치단기선교사과정(Research Missionary Training Course)이 있다.

7. 조사방법

1) 사전조사

(1) 문헌 조사

① 인터넷 조사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

주한가나대사관, www.ghanaembassy.or.kr

위키백과사전, www.wikipedia.org

한국브리태니커회사 세계사 연표, www.timeline.britannica.co.kr

두산백과사전, www.encyber.com

CIA, www.cia.gov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 www.goodnews.co.kr

기독뉴스 www.gidoknew.com

② 문헌 조사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2권 제1호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싸시(Sasi), 캥카(Kangka), 보피에(Bofie), 베마(Bema), 멘지(Menji), 브롱하니(Bronghani), 본가시(Bongasi) 마을 관찰 조사

(2) 인터뷰

① 전문가 인터뷰

Osman Abubakal(40세, 이맘)

② 일반인

Okyei Immanuel(15세, 학생)

Daniel (37세, 현지 목사님)

임철순 선교사님(한국 선교사님)

Paul(26세, 초등-중등학교 교장)

Alla Haji Amadumusa(72세, 베마 지역 노인)

Amadu Sufre(85세, 베마 지역 노인)

기타 마을 주민들

8. 조사 성과와 한계점⁴

서부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가나의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로 인해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가 풍부하지만 가나 중서부의 반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인 반다 릿비 종족에 대한 자료는 없거나 갱신된 시간이 오래된 자료뿐이다. 이를 통해 최근 릿비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팀은 실제 릿비 종족이 분포하고 있는 가나 반다 지역을 방문하여 2주간에 걸친 현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확보하였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다양한 릿비 종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릿비 종족의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릿비 종족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 조사는 갱신된 시간이 오래되어 릿비 종족의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보완해 주며 릿비 종족에 대한 조사의 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은 릿비 종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기간이 짧아 릿비 종족에 대한 조사 계획이 확실하지 못해 현장에서 효율적인 릿비 종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언어의 한계로 인해 조고르어, 영어, 한국어 순으로 2번의 통역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정확한 정보와 정서를 담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조사팀의 팀원 중 몇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3주였던 조사 기간이 2주로 줄어들어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⁴ 본 보고서와 관련한 사전조사로는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를 참조하였다.

II. 들어가는 말

가나는 아프리카 서부의 기니만에 면한 연안 국가로 세계 경제(GDP)순위에서 75위, 아프리카 내에서 10위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발전한 국가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변동이 크지 않아 안정적이나 1957년 영국으로부터 83년 간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여 아직까지 외형적인 안정만 갖춘 상태이다. 빠른 성장을 한 제 3세계 개발 도상국이 그렇듯이 가시적 성장보다 의식 수준의 성장은 상당히 지체된 모습을 보인다. 현지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특히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속임과 거짓말이 만연하다고 한다. 가나의 종교는 오순절교 및 카리스마교(24.1%), 개신교도 (18.6%), 이슬람교 (16.6%), 카톨릭(15.3%), 기독교(11%), 전통종교(8.5%) 무교 (6.2%) 및 기타종교 (0.7%)등의 순이다.⁵ 개신교도 중에서도 복음주의자의 비율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나에서는 종교 간 분쟁 발발의 근원부터 방지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 이슬람 학교도 같이 세워야 하며 종교가 학교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항이 있을 만큼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

가나 기독교의 내외적 상황이 열악한 만큼 가나 남부 지역에 많은 사역자들의 연합과 회복이 절실하며 북부 지역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종족이 있어 추수할 일꾼들이 시급히 필요하다. 가나의 기독교 실태를 통해 본 조사팀은 가나 북부의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역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북서부 반다 지역에 있는 순수 무슬림 종족인 릭비 종족을 조사하고 종교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릭비 종족을 회심하게 할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릭비 종족은 가나에 17,000명, 코트디부아르에 6,000명⁶ 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반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반다 지역의 다른 한 종족인 나파나 종족 또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 살고 있다. 나파나 종족은 기독교인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지리적으로 비슷한 이점을 통해 주변인 전도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릭비 종족은 500년 전 북부 아프리카에서 내려와 반다 지역에 정착한 종족인데, 반다로 이전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순수한 이슬람 공동체를 유지해 왔다. 이슬람이 그들의 종교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그들의 삶 전체에 녹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릭비 종족이 살고 있는 반다 지역이 삶의 여러 방면에서도 태되어 있고, 교통 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타 문화와의 교류도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릭비 종족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오랫동안 다른 종교, 문화와의 접촉 없이 순수하게 이슬람 공동체를 유지해 온 것과 지역적으로 도태되어 있으며 릭비 종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을 미루어 보아 반다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릭비 종족에 선교학적으로

⁵ 가나대사관, www.ghanaembassy.or.kr을 참조하였다.

⁶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을 참조하였다.

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던 릭비 종족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이 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고 이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곳에서 충성되게 사역할 자들을 모으는 데 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 귀한 리더들이 세워져 반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가나를,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Ⅲ. 릭비 종족의 현황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

(1) 가나

가나는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 연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동쪽은 토고, 서쪽은 코트디부아르, 북쪽은 부르키나파소와 국경을 접하며 남쪽은 기니만에 면해 있다. 서부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이며 아프리카에서 몇 안 되는 내전이 없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이다.

역사적으로는 15세기부터 1957년 독립하기까지 약 500년 동안 무력으로 점거 당했다. 독립하기 전 영국으로부터 83년 동안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 후에도 영국의 제도가 남아있다.⁷

가나에는 약 109개의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다. 부족마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독립 이후 대다수의 국민이 공용어인 영어와 추이어(twi)를 사용하게 된 것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종족만의 독특한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⁸

(2) 브롱 아하포 주(Brong-Ahafo Region)

릭비 종족이 거주하는 반다 지역에 속해있는 브롱 아하포는 가나의 행정 단위인 10개 주 중 한 주이다. 가나 중서부의 아산티 지역과 코트디부아르의 국경 사이에 위치해있고 주도(州都)는 순니아니(Sunyani)이다. 이 지역은 많은 문화적, 야생적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구역인 아산티(Ashanti)와 노던(Northern), 센트럴(Central), 그레이트 아크라(Great Accra)에 비해 관광객들에게 덜 알려져 있다.⁹



〈그림 Ⅲ-1〉 브롱 아파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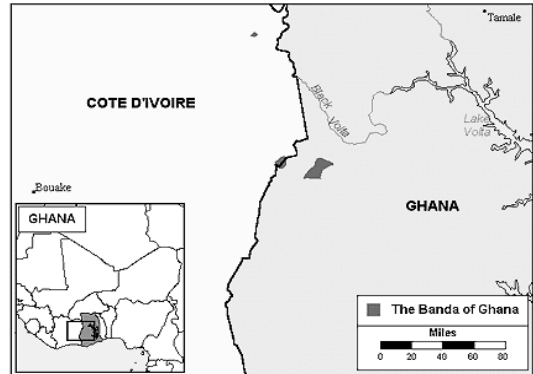
⁷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2권 제1호』 (p. 286)를 참조하였다.

⁸ 아산티(Ashanti)종족의 언어이다. 가나에 속한 종족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종족들을 다스려 왔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종족들이 추이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가나정부수립 이후에도 추이어를 공용어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

⁹ 본 내용은 위키백과사전, www.wikipedia.com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3) 반다, 릭비(Banda, Ligbi)

릭비 종족과 나파나(Nafana) 종족이 거주하는, 브롱아하포 주에 속해 있는 반다 지역은 여러 개의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다. 종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은 종족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마을 내부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 해결하며 릭비 종족의 마을은 종교지도자인 이맘이 주축이 되어 통치한다. 반다의 중심마을(Capital Village)은 아행크로(Ahangkro)이고 행정중심마을은 인소코(Insoco)이다. 릭비 종족의 마을은 싸씨(Sasi), 캥카(Kangka), 봉가씨(Bongasi), 브롱하니(Bronghani), 베마(Bema), 보피에(Bofie)이며 각 마을마다 모스크가 있다. 반다 지역 외에도 멘지(Menji), 웬치(Wenchi)에 다수의 릭비 종족이 살고 있다.



〈그림 Ⅲ-2〉 가나의 반다지역

2) 정체성

외부에 릭비라는 종족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릭비 종족은 자신들을 ‘조고(Jogo)’라고 부른다. 조고는 릭비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알려져 있다. 조고라는 종족명으로 불리기 이전에는 밤바(Bamba)라고도 불렸으며 밤바는 ‘악어’라는 뜻이다. 릭비 종족의 조상들이 전쟁 중에 강을 건너야 했지만 배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악어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 때문에 악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악어라는 뜻의 ‘밤바’라고 부르게 되었다.

릭비 종족의 종족언어는 조고어(語)다. 본 조사팀이 조사할 당시 마을의 어른들은 조고어 외에 추이어(語)를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영어까지 할 수 있었다. 몇 십 년 간 식민 통치를 해 온 영국은 자국의 언어인 영어를 가나에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다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릭비 종족은 순수한 순니파 무슬림이다. 반다 지역을 떠나 주변의 도시에 거주하는 릭비 종족 중에는 극소수의 비무슬림이 존재한다. 수 백 년 간 유지해 온 순수한 이슬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의무적인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아 정체성이 약한 세습적인 종교로 보인다. 릭비 종족은 자신들의 종교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본 조사팀원들의 종교가 기독교임을 알았음에도 경계하지 않고 금요일 이슬람

예배 촬영을 허락해 주었다.¹⁰

3) 인구

(1) 가나 인구

〈표III-1〉 가나의 인구통계¹¹

총인구	23,832,495(2009년 7월 기준)
인구 구성	0-14세: 37.3%(남 2,503,331/여 4,393,104) 15-64세: 59.1%(남 7,039,696/여 7,042,208) 65세 이상: 3.6%(남 393,364/여 460,792)
평균연령	전체: 20.7세 남성: 20.5세 여성: 21세
인구 증가율	882%
출생률	28.58명/1,000명 인구 기준
사망률	9.39명/1,000명 인구 기준
성비	출생시: 1.03명 남성/여성 15세 이하: 1.02명 남성/여성 15-64세: 1명 남성/여성 65세 이상: 0.85명 남성/여성 전체인구: 1명 남성/여성
유아 사망률	총: 51.09명 사망/1,000명 유아출생 기준 남성: 55.32명 사망/1,000명 유아출생 기준 여성: 46.74명 사망/1,000명 유아출생 기준
평균수명	전체인구: 59.85세 남성: 58.98세 여성: 60.75세
출산율	3.68명 출산/여성 한 명 기준

(2) 주요 종족별 인구 분포¹² 및 행정구역 별 인구 분포

가나 주요 종족의 인구 분포는 Asante(아산티) 14.8%, Ewe(에웨) 12.7%, Fante(판테) 9.9%, Boron(Brong)(보론, 브롱) 4.6%, Dagomba(다곰바) 4.3%, Dangme(단 그메) 4.3%, Dagarte(Dagaba)(다가르테, 다가바) 3.7%, Akyem(아끼예른) 3.4%, Ga(가)

¹⁰ 본 조사팀의 인터뷰에 응한 보피에(Bofie) 마을의 원로들은 마을 구성원 중 기독교로 개종한 자에 대해서 여전히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전과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고 솔직히 말해주었다.

¹¹ 본 항목은 CIA World Factbook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¹² Ibid.

3.4%, Akuapern(아꾸아페른) 2.9%이고, 이외에 기타 소수 종족이 36.1%에 해당한다.

〈표Ⅲ-2〉 10개 행정구역별 인구분포

	지역구분	주도	인구
1	노던	타말레	1,820,806(9.6%)
2	브롱-아하포	수냐니	1,815,408(9.6%)
3	아산티	쿠마시	3,612,950(19.1%)
4	웨스턴	세콘디	1,924,577(10.2%)
5	볼타	호	1,635,421(8.6%)
6	이스턴	코포리두아	2,106,696(11.1%)
7	업퍼 웨스트	와	576,583(3.0%)
8	센트럴	케이프 코스트	1,593,823(8.4)
9	업퍼 이스트	볼가탕가	920,089(4.9%)
10	그레이트 아크라	아크라	2,905,726(15.4%)

(3) 반다, 립비 인구

반다 지역 립비 종족의 인구를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국가기관에 등록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의 남성, 여성뿐이며 그 이하의 아이들에 대한 통계 자료는 전혀 없다. 각 마을당 18세 이상의 남성, 여성은 평균 200~300명이며¹³ 반다 지역 립비 종족의 총 인구수는 약 3,000~4,000명 정도로 추측된다.¹⁴

4) 지리¹⁵

(1) 지리

가나는 대부분이 낮은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해발 900m를 넘지 않는다. 남서부와 북서부, 북부 끝은 오랜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인해 지역 전체가 낮고 평평하게 평지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볼타(Volta)분지를 이루고 있다. 남쪽과 북쪽, 서쪽으로는 분지의 끝부분이 존재하는데 융기되어 300~600m 높이의 좁은 고원지대가 생겨났다. 황금해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남부 해안 평야는 내륙으로 50~80km 정도까지 펼쳐져 있으며 남쪽의 볼타강 어귀에는 많은 석호와 습지가 발달해 있다. 볼타강 유역은 영토의 60%이상을 차지하는데 인공호 인 볼타 호까지 있어 가나의 배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나에

¹³ 보피에 지역의 종교지도자인 Osman Abubakal(이맘, 40세)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였다.

¹⁴ 전문사역자 Daniel(현지 목사님, 37세)의 2009년 7월 9일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였다.

¹⁵ 본 항목은 브리태니커 사전, www.britannica.co.kr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는 프라, 안코브라, 타노 같은 강들도 있다.

국토의 약 1/3이 숲으로 덮여 있고 농경에 적합한 땅은 1/8 정도이다. 지하자원으로는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금을 비롯하여 다이아몬드·망간·철·보크사이트·석유 등이 있다.

(2) 기후

릭비 종족이 사는 곳의 기후는 일반적 가나의 기후와 별다르지 않다. 북동쪽에서 사하라 사막을 거쳐 흙먼지를 동반한 고온 건조한 기단과 남서쪽 대서양 남부를 가로질러 온 열대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북부 지방을 제외하고 4~6월과 9~11월에 걸쳐 2번의 우기가 있다. 연평균 강우량은 1,141~1,270mm이며 연평균 기온은 대서양 연안이 26℃이고, 내륙은 29℃이다. 1~2월에는 ‘하마탄’이라는 건조한 북동풍이 분다.

(3) 식생

남북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해안 사바나 지대인 남동부 평야는 관목과 키가 큰 풀이 섞여 있고, 남부 삼림 지대는 상록수와 열대반낙엽수림으로, 북부 사바나 지대는 키가 큰 기니아 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러 종의 아카시아 같은 키 작은 나무들이 흩어져 있다. 또한 사자·표범·하이에나·영양·코끼리·물소·침팬지·원숭이·하마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5) 역사

(1) 가나의 역사¹⁶

오늘날의 가나 공화국(Republic of Ghana)은 과거 서부에서 융성했던 가나 제국(4~13세기)의 이름은 본뜬 것이다. 지금의 영토는 18~19세기 강력한 중앙집권왕국이었던 아샨티 제국이 존재했던 지역이다.

현재 가나의 영토는 고대에 많은 부족들이 흥망성쇠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15세기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의 연안에 노예성들을 만들었다. 1807년 이후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예무역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다른 무역, 특히 금 무역에 집중하게 되었다. 1830~1844년 영국의 상인들이 연안의 부족들을 영국의 보호령으로 만들면서 1850년 덴마크의 성채까지 사들이고는 1874년 영국 식민지인 ‘황금해안(Gold Coast)’을 확립했다.

1897년 부족의 토지를 영국 왕실소유지(국유)로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원주민

¹⁶ 본 항목은 두산백과사전, www.encyber.com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이익옹호협회가 결성되었으며, 이는 추장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정치운동이었다. 이후 1920년 최초의 근대적 민족주의 단체로 아크라에서 결성된 '서아프리카 민족회의'와 1947년 단쿠아 박사를 중심으로 '통일 골드 코스트 회의(UGCC)'가 결성되었다. 이때 UGCC의 서기장이었던 크와메 은크루마(Kwame Nkrumah)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족독립운동의 추진을 결심하고 1949년 6월 회의인민당(CPP)을 조직했다. 1951년 선거에서 은크루마가 당선되어 자치정부의 수반이 되었고 1957년 3월 6일 '가나'라는 국명으로 독립하였다.

1960년 국민투표로 "가나공화국"이 되었으며, 은크루마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66년 2월 은크루마가 베트남의 화평문제에 해외방문 중 본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실각하고 헌법은 폐기되었으며, 회의인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는 무너졌다. 이후 1981년 사이 여섯 개의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그 중 다섯은 군정부)아래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가나 국민들은 분노했다.

1979년 6월 제리 존 롤링스(Jerry John Rawlings)가 이끄는 젊은 군대가 쿠데타에 성공해 정권을 잡고 부정부패단속을 통해 많은 구정치인들을 숙청했다. 1991년 민정 이양과 복수정당제를 채택하였고, 1992년 11월 제리 존 롤링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재당선되었다. 2000년 12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존 아제쿰 쿠푸오프(John Agyekum Kufuor)가 여당후보인 현 부통령을 누르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이 승리하여 가나는 독립 이래 최초의 민선정부에서 민선정부로 정권이 이양되었다.

(2) 릭비 종족의 역사

릭비 종족은 코트디부아르의 서쪽에 있는 만디 땅에서 거주했었다. 그러나 500년 전에 마사무로(masamuro)라는 사람이 가나의 남부 해안을 공격했고 그 전쟁을 피하려고 반다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반다 지역으로 처음 왔을 때가 1430년이었고 바하(Baha)가 첫 번째 리더였다. 나파나 종족의 초청으로 릭비 종족은 반다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나파나 종족이 글자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릭비 종족은 글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다 지역으로 초청함으로써 릭비 종족의 글자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 반다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아산티 종족과 나파나 종족, 릭비 종족의 전쟁에서 나파나 종족과 릭비 종족이 승리하였고 그로 인해 반다 지역에 나파나 종족과 릭비 종족의 마을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¹⁷

6) 요약

¹⁷ 본 내용은 베마(Bema)의 원로 Alla haji amadumusa(72)와의 2009년 7월 11일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가나는 다양한 광물 자원과 높은 인구 수로 인해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주변의 많은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가나의 남부는 기독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는 이슬람과 토착 종교가 차지하고 있다. 릭비 종족이 비록 소수이긴 하나 그 영향력이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어 북음의 접촉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분야

1) 개요

가나는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쿠데타와 독재로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여 왔다. 여러 쿠데타와 독재를 거치며 현재 가나는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국회는 단원제로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은 230명으로 구성된다. 군대는 지원병제이고, 외교원칙은 비동맹정책이다. 또한 가나는 영구연방의 구성국이다.

2) 정치 구조

릭비 종족은 대부분 가나의 정치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릭비 종족만의 고유한 법은 없다. 종족 내에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맘과 부이맘, 어른들이 모여 의논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싸씨, 캉카에 있는 경찰서의 도움을 받는다. 릭비 종족은 아주 소수의 타종교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무슬림인 순수한 이슬람 종족이다. 이때 순수한 무슬림 종족이라는 것은 종교성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고 보다는 종족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릭비 종족이 타종교를 인정하고 축제를 간소화하며 5번의 예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관습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법과 국가의 법이 상충할 때에는 국가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코란에 나와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 내의 법을 따라서 경찰서로 사건을 넘긴다고 한다. 싸움이 있을 시에는 작은 문제일 경우 마을의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 화해를 시키지만, 일이 커지게 되면 바로 법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릭비 종족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보피에(Bofie) 같은 지역에는 나파나 종족과 릭비 종족이 한 마을에 살고 있다. 나파나 종족이 살고 있는 각 마을마다 추장이 있지만, 릭비 종족과 나파나 종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추장의

권위보다 이맘의 권위가 더 인정된다. 최고 이맘과 그 아래 부이맘,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모든 의사 결정을 한다. 이맘의 선출방법은 이맘 후보자의 성격과 태도를 살피고 아랍어 사용 여부에 따라 이맘을 선출한다고 한다. 이맘을 선출할 때는 마을의 추장과 원로들이 모여 이맘을 선출한다.

3) 요약

릭비 종족은 행정체계에 대한 인식조차 미비하고 행정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마을의 행정 구역과 단위 조사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사법 체계 역시 종교법을 따르기 보다는 국가 내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맘과 마을 내의 원로들이 마을 안의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과 행정체계에 있어서 미비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문서화된 자료가 거의 없고, 국가와의 교류도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분야

1) 개요¹⁸

릭비 종족은 가나 총 인구 23,832,495(2009, 7월 통계) 에 비례했을 때 0.071%의 소수 종족이자 만다 지역 내에서도 외부로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고립된 이슬람 종족이다. 삶의 양식이 대부분 이슬람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가족구조

릭비 종족의 평균 연령은 60~80세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은 보통 7명이다. 마을마다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친족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다. 그러나 친척 모두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 같이 사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핵가족과 같이 개별적으로 거주하지는 않는다. 가정의 경제권과 의사결정권은 남편에게 속해 있다.

3)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¹⁹

다른 지역에 있는 릭비 종족이나 다른 종족 과의 교류는 거의 없으나 우호적인 감정에

¹⁸ 본 항목은 미국 중앙정보국, www.cia.gov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¹⁹ 본 항목은 Osman abubakal(이맘, 40세)의 2009년 7월 10일 인터뷰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의한 연대감을 공유한다.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세대 간에 구분을 지을만한 사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전통적으로 삶의 바탕이 이슬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문화적 변화 속도는 매우 느리고 대중 매체를 접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며 문화적 변화 속도가 매우 느리고 대중 매체에 의한 전통의 탈바꿈이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영어 교육으로 인하여 조금씩 언어를 통하여 다양한 문물을 접하므로 세계관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4) 사회적 모임 및 단체²⁰

마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맘과 원로들이 모여 해결한다. 각 마을 이맘들의 정기적인 모임은 라마단, 장례식, 이드알피트르 (Eid al-Fitr, 금식월 라마단 후의 축제)라는 이슬람 축제 때 이루어진다. 다른 마을 혹은 종족 간 특별한 모임은 없으며 주로 마을 안에서 고유 축제나 이슬람 축제를 벌인다.

5) 여성의 모습²¹

릭비 종족의 여성들은 이슬람 식 옷을 입고 있었는데 중동 지역의 이슬람식 옷인 헤자브(Hijab), 부르카(Burqa), 차도르(Chador)와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 긴 천이나 실크로 상체를 덮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얼굴을 다 보이게 실크로 된 스카프로 두르고 있었다. 여성들은 주로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농사를 짓거나 소규모의 물건 파는 일을 한다. 본래는 문화적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으나 나라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하면서 여자 아이들도 학교에 나가고 있다.

6) 요약

최근 있었던 종족 내의 사회적 변화는 교육 부분에서 학교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점과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3일간 벌이던 큰 축제를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본래 라마단이 끝나면 마을에서 음식을 만들어 축제를 벌였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축제가 줄어들고 있다. 재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실용적으로 이뤄지고

²⁰ 이드알피트르는 3일 간 이루어지는 연휴였으나 요즈음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즐기기 위하여 라마단이 끝난 후의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기념하는 정도의 축제를 벌인다고 한다. (본 항목은 릭비 종족 마을 원로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²¹ 본 항목은 굿뉴스, www.goodnews.co.kr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있는 것 같다.

4. 경제분야

1) 개요²²

릭비 종족의 경제는 가나의 경제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나의 경제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가나는 금, 카카오 및 재목,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같이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로 수출을 통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다. 서부 아프리카 국가 중 2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 가나의 경제는 전형적인 1차 산업 중심의 경제이다.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차지하며 농업종사자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007년에는 가나 내에 30억 배럴(BBL)의 경유가 묻혀있는 유전이 발견되어 유전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ACP)제국의 일원으로서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연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권 내에서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과는 반대로 공공 부분 지출 증가, 인플레이션,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공의 불만이 증폭되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 7월에 국내 통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운동에 착수 했고, 세디(c)에서 가나 세디(GH¢)로 바뀌었고 환산율은 10,000c = 1GH¢로 제정되었으나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릭비 종족은 가나의 소수 종족 중 하나로 중서부의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가나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릭비 종족은 얀(YAM) 농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자립을 했지만 아직은 기초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산업구조²³

가나의 산업구조를 크게 분류한다면 농업(농공), 금소광업, 석유산업, 제조공업으로 구성되어있다.

농업은 가나의 가장 기준이 되는 산업으로 거의 인구의 반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나라가 여러 종류의 기후대를 갖기 때문에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고구마, 곡물, 카카오, 기름야자나무, 콜라나무 열매 등의 경작물이 가나 경제의 기초 품

²² 본 항목은 위키백과사전, www.en.wikipedia.org와 한국가나선교회, www.kr.blog.yahoo.com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²³ 본 항목은 세계백과사전, www.nationsencyclopedia.com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목이다. 그 중 카카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⁴

금소광업 또한 가나 경제에 큰 몫을 한다. 카카오 다음에 가나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수출품은 금으로 아프리카 국가들 중 남아공 다음으로 생산을 많이 한다. 2005년에는 금 생산이 전 채광 수익의 95%를 차지했다. 망간 역시 가나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2006년도에는 1.6백만 톤의 망간을 생산했고 국내에는 6천만 톤의 망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묻혀 있다. 다이아몬드도 금소광업의 주요 품목이다. 과거 가나의 다이아몬드는 70%가 밀수출되었지만 현재에는 정부가 PCCM이란 단체를 세워 밀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⁵

가나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석유가 1970년대부터 발견 되었지만 1990년대까지 생산하기 어려웠다. 1983년도에 국가에서 GNPC(Gha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를 설립하면서 석유 탐사와 다른 외국 회사들과 협정하며 생산을 증진했다. 요즘에도 상당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나의 제조 공업은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 비교해 많이 발전된 편이다. 국내 총생산의(GDP)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7.8%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나는 세계에서 38번째로 공업 생산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다.

릭비 종족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얌(YAM)농사를 통한 자급자족 형태를 갖고 있으며 때에 따라 가까운 곳에 나가 판다. 여성들의 경우 가까운 도시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3) 발전수준²⁶

정부의 재정과 재정 정책을 살펴 보면 부당한 관리로 인해 2000년도까지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웠지만 2002년도 외채 과다 최빈국(HIPC)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물가는 2007년의 국내 통화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운동을 착수한 이후로 많이 올랐다.

지역 별로 발전 수준을 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 수도 도시와 근처에 있는 대 도시들의 발전 수준은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발전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지방의 상황은 다르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마을들은 대부분이 전기 시설이 없고 수도 시설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부분이 물 탱크와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지하수 물을 떠나 사용한다. 릭비 종족이 사는 지역 역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들이 많이 부족하다.

²⁴ 본 내용은 위키백과사전, www.en.wikipedia.org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²⁵ 본 내용은 U.S. Geological Survey, www.usgs.gov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²⁶ 본 항목은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www.iss.co.za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4) 주요산품

릭비 종족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한다. 종족의 가장 중요한 생산물은 얀(YAM)이다. 얀은 다년생의 초본의 덩굴식물로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부분이 얀을 생산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릭비 종족은 도토리과 콩, 카사바(Cassava), 옥수수, 땅콩 등을 생산한다. 릭비 종족은 특별한 공예품을 생산하지 않으며 농업을 통해 수확한 것을 때론 시장에 팔기도 한다.

5) 요약

가나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달리 릭비 종족의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과 여성은 농사로서 생계를 꾸려나감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서부 아프리카의 2위의 경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방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종족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과 같은 총체적 선교와 관련 지어 바라 볼 필요가 있다.

5. 생활분야²⁷

1) 개요

릭비 종족은 보통 농사를 지으며 생활한다. 남성들과 여성들은 농사 기간이 되면 토지를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있으며 일부의 여성들은 농사 대신 도시 지역으로 나가 장사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생활의 특징이 가나의 전체적인 특징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2) 식생활

릭비 종족이 먹는 음식은 가나의 대표적인 음식들로 방쿠, 푸푸, 켕끼, 프라이 라이스, 얀과 플란틴 등이 있다. 방쿠는 시큼한 발효된 음식이다. 반죽된 옥수수, 카사바 등이 재료로 쓰이며 소스가 함께 나온다. 주로 오크로 소스와 함께 먹는다. 푸푸는 카사바와 얀으로 반죽된 음식으로 기호에 따라 다양한 스프를 만들어 닭고기, 염소고기, 생선과 같이 먹는다. 켕끼도 옥수수를 발효한 음식이다. 매우 신 맛이 나며 다양한 소스와 생선등과 같이 먹는다.

²⁷ 본 항목은 Osman Abubakal(이맘, 40세)과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얌은 한국의 감자와 맛이 비슷하고 플란틴은 바나나와 모양이 유사하나 맛은 전혀 다르다. 얌과 플란틴은 찌서 소스와 같이 먹는다.

가나의 대표적인 과일들은 망고, 포포, 파인애플 등이다. 망고는 필리핀에 나는 망고와 비교했을 때 더 크며 포포는 파파야의 다른 말로 열매 속에 많은 검은 씨가 있다.

3) 의복

릭비 종족의 남성들이 입는 옷은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는 옷과 비슷하다. 이슬람 예배날인 금요일이 되면 이슬람 복장으로 차려 입는다. 창이 없는 모자를 쓰고 실크로 된 옷을 입는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과 다르게 평상시에도 이슬람 복장을 입는다. 그러나 중동의 이슬람의 복장과는 달리 개방적이며 머리와 상체를 실크로 덮는다. 이슬람 축제에는 모두 이슬람 복장을 입고 종족의 축제인 크루비(Krubi)에는 평상복을 입는다.

4) 주거

릭비 종족의 전통 적인 가옥은 초가이다. 가옥의 하부에는 흙을 빚어 사각형의 모양으로 벽에 두르고 집의 지붕은 기둥으로 받쳐 뗏목으로 덮어 놓았다. 집은 남성들이 지으며 긴 나무 막대기로 집을 지탱하고 흙을 바르고 뗏목으로 위를 덮는다. 전통 가옥은 우기 때 강수로 인해 뗏목이 썩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지붕을 바꿔줘야 한다.

지은 집 또한 오래 가지 않는다. 하마탄 기후와 강수로 인해 흙이 말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다. 현재 전통 가옥은 주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사방이 뚫려 있고 지붕만 뗏목으로 덮인 주방도 있었다. 주거하는 집은 사각형의 모양으로 시멘트가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고 지붕은 판자로 덮여 있었다.

5) 위생의료

릭비 종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가나 북서부의 사바나 대초원 지역이다. 대초원 지역이라 장티푸스, 황열병, 사상충증, 수면병 등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의료시설과 기관이 많지 않다. 릭비 종족은 병에 걸렸을 경우 같이 기도해 주고 병원으로 간다고 한다. 병원은 세 군데에 있으며 릭비 종족이 사는 반다 지역과, 반다 지역의 동부 쪽에 위치한 도시 지역인 웬치, 그리고 서부 쪽에 위치한 인쏘코에 있다. 반다 지역 중 릭비 종족이 사는 곳이 7곳이 있는데 봉가씨, 짜씨, 캉가, 브롱하임, 멘지, 베마, 보피가 있다. 이 지역들은 그 위치에 따라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보통 40km정도 떨어져 있어 하루에 몇 대 이동하는 튜로튜로(가나의 공공 교통)를 이용한다. 그러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조사팀이 방문한 병원은 반다 지역 내에 위치한 Banda Healthy Center로 오히려 도시 지역의 병원 시설보다 양호했다. 이 병원은 싸씨 바로 옆에 위치한 반다 아힌크루라는 지역에 있다.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는 말라리아, 장티푸스, 일반적인 질병들이며 중풍, 암에도 걸린다.

6) 환경

릭비 종족은 물을 펌프를 사용해 우물물을 끌어 올리거나 수도 꼭지를 사용한다. 마을 별로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싸씨, 캉카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반다 아힌크루에는 상수도관이 있어 수도 꼭지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본 조사팀은 베마와 보피, 싸씨와 캉카 지역을 돌아 보았는데 베마에는 4개의 펌프가 존재했고 그 중에 한 개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다. 보피에는 6개의 펌프가 존재했고 그 중에 2개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싸씨와 캉카 지역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물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건기 때 오는 하마탄 기후 때는 물이 많이 부족해져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펌프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7) 교통

가나 사람들은 주로 튜로튜로(Trotro)라고 불리는 대중 교통을 이용한다. 봉고차 크기의 튜로튜로는 한 도시 안에서 움직이며 그 보다 더 큰 차는 가까운 도시 간에 이동할 때 사용된다. 튜로튜로는 일정 시간이 되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차야 출발하고 처음에는 종점까지의 가격을 내며 중간에 타는 사람들은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한다. 택시도 많이 이용하는데 가격은 튜로튜로의 2~3배이다.

도 단위로 멀리 이동할 경우에는 STC를 이용한다. STC는 가나의 시외버스로 유럽에서 들여온 Luxury 버스와 Ordinary 버스 두 종류가 있다. Luxury 버스는 에어컨과 TV가 설치되어 있고 좌석이 앞뒤와 좌우로 움직인다.

릭비 종족은 반다 지역 내의 여러 곳에 거주하고 있다. 마을 간의 거리는 가깝게는 100m에서 멀게는 80km까지 된다. 릭비 종족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은 자전거이며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자전거가 없는 사람들은 대중 교통인 튜로튜로를 이용한다. 보통 하루에 2~4번 다니며 먼 마을을 이동하거나 반다 지역 밖에 있는 웬치나 인쑤코 같은 도시로 이동할 때 사용한다. 개인 소유의 차가 있는 마을은 그 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8) 대중매체 보급률

릭비 종족이 사는 지역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있다. 2년 전에 국가에서 설치해 준 것이다. 릭비 종족이 사는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가 보급되고 있으나 베마 지역에는 전기가 보급되지 않는다. 전기가 보급되는 지역이라도 TV와 라디오, 신문 등을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 소식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나 내에는 신문 배달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도시 지역에 나가서 직접 신문을 사서 봐야 한다.

릭비 종족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가나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핸드폰만 구입한 다음에 Tigo, MTN 같은 회사의 칩을 넣는다. 칩에는 번호가 적혀 있고 그 번호가 핸드폰의 번호가 된다.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유닛을 사야 하는데 유닛 역시 회사별로 판다. 전화기에 *123*유닛번호#를 누르고 send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가 뜨면서 충전되었음을 알려준다.

9) 요약

릭비 종족이 사는 지역에는 기후변동으로 인해 물이 부족한 곳이 많다. 특히 1월, 2월의 하마탄 기후 때는 식수와 생활에 필요한 물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릭비 종족이 거주하는 반다 지역에는 의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경우 치료하기가 힘들다. 이 같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선교가 이뤄진다면 영과 육의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6. 문화분야²⁸

1) 개요

약 600년 전, 반다(Banda) 지역에 정착한 이래로 릭비(Ligbi) 족은 종족 전체가 이슬람 문화권의 공휴일을 지키며, 마을의 종교 지도자인 이맘(Imam)을 중심으로 매년 이슬람과 관련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릭비(Ligbi) 족은 자민족끼리 이슬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으나 최근 교통 시설 및 대중 매체의 보급과 교육을 통한 영어 사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타 종교를 가진 주변 지역 종족들과도 다양한 축제를 여는 등 문화적 교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2) 예술

²⁸ 본 항목은 베마 지역의 주민들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종족 전통 춤에는 약바(Yakba)와 구비(Gubi)춤이 있으며, 마을 안에 잔치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마을 주민 전체가 모여, 북을 치며 흥겨운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춘다.



〈그림 Ⅲ-3〉 릭비 종족의 전통 춤

3) 축제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릭비 종족의 공휴일과 축제로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스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집단 예배일이 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모든 상점이나 학교, 공공기관은 문을 닫고 가정에서도 집안일을 쉬며 모든 마을 주민들은 모스크에 모여 알라를 기념한다.

이슬람력 9월이 되면,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에 속하는 라마단(Ramadan)이라는 단신을 한달 간 행한다. 이 라마단 기간에는 단식을 하며 종교적 수행을 게을리 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스스로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슬람력 9월 라마단이 끝난 후 10월 1일에 단식을 깨뜨리는 축제인 크루비(Krubi)와 이드 파트르(Idd fetil) 축제가 시작된다. 크루비(Krubi)는 라마단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단식이 마치는 것을 축하하며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축제이고, 이드 파트르(Idd fetil)는 라마단이 끝나면 단식을 마치는 것을 축하하며 3일 간의 별이는 축제이다. 축제 날, 무슬림은 목욕 제계를 하고 가장 좋은 외출복을 입고 아침 일찍 가까운 모스크로 향한다. 축제 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 다양한 성찬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단식을 마무리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친척과 친지들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교환한다.

이슬람력 12월에는 성지순례를 끝내고 양을 희생시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축제인 이드하(Iddiadhha)축제가 있다. 이슬람력으로 10월부터 12월 10일까지 행해지는 이드하(Iddiadhha) 축제는 이슬람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성지순례를 한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양을 잡아 바친 것을 본받아 모든 성인 남자 무슬림은 각자 양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축제이다.

4) 결혼과 장례, 출산

릭비 종족은 보통 남성이 18세, 여성이 16세가 되면 결혼을 하며, 마을 별로 거의 이슬람 식의 결혼 문화를 따르고 있는데 일부다처의 허용, 결혼 지참금 제도 등 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연애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 아랍사회의 이슬람식 결혼 문화와는 달리, 릭비 종족은 남성이 본인의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연애 결혼을 한다.

일부 다처의 허용은 한 남편이 다수의 아내를 맞이하는 제도로 이슬람 문화권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릭비 종족 남성은 3~4명의 아내를 맞이하며, 한 가정당 10~20명의 자녀를 갖는다.

결혼 지참금 제도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로 신부측에 일정한 선물을 주는 제도로 신랑 측은 신부에게 돈에 해당하는 베일과 샌달 등의 의복을 선물한다.

보통 이슬람 식 결혼과는 달리, 연애를 통한 결혼이 이루어진다. 남성 쪽에서 주로 의사 표현을 하며, 상대편 여성은 약혼의 증표로서 받은 코코아 열매나 사탕을 받고 나서 교제를 통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남성 쪽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코코아 열매, 단 물엿 같은 사탕 등을 주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후, 약 1년 동안의 연애를 통하여, 양쪽 가정의 승낙을 받은 후, 마을 어른이나 이맘에게 허락을 받은 후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결혼식은 마을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음식을 나누면서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이루어진다.

릭비 종족의 결혼 예식에 관련된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종족 안에서 지켜온 이슬람의 종교성을 보존하기 위한 이슬람권 내에서만 결혼하는 결혼 풍습이다. 릭비 종족 간의 결혼이 대부분이지만 혹 이슬람을 믿거나 이슬람을 받아들여기로 하는 전제 하에서 타 지역 종족과의 결혼이 허용된다.

또한, 이슬람 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처녀성의 확인도 릭비 종족의 결혼 예식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흔히, 첫날 밤을 치룬 후, 흰 천에 혈흔이 발견되는지 아닌지 여부로 판단하며 정결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사생아로 여겨 가문에서 자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이슬람 문화의 정절을 중요시 여기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5) 예절 및 금기

마을의 종교 지도자이며 족장의 권위를 대부분 지니는 이맘이나 존경하는 어른에게는 몸을 낮춰서 손에 입을 맞추거나 악수를 한다.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족장의 권위가 절대적이므로, 마을에 방문할 경우 족장에게 먼저 정중히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마을의 큰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도, 족장이 모임에 오면 모두가 일어서서 맞이 하고 족장이 앉으면 앉는다. 이슬람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것들을 대부분 금기로 여기지만, 릭비 종족은 물건을 줄 때 왼손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6) 대중문화

전기가 설치된 마을의 경우 위성이 설치되어 몇 가구에 TV가 설치되어 있다. 아직 반다 지역 전체에 신문을 배달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 마다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편을 이용하여 하루에 한두 번씩 장에 나갈 수 있어 지역 상점에 가서 신문을 사서 볼 수 있다.

7) 요약

릭비 종족의 문화는 대부분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슬람이 관습과 같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에서 꼭 지켜야 하는 금기 중 지켜지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단절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외부의 문화나 타 종족과의 교류가 없었지만 최근 개선된 전기 시설과 방송 시설로 인해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늘어난 교통편과 정비된 도로로 타 종족과의 문화적 교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7. 교육분야

1) 개요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이룬 나라로 국가 형성 작업이 빨리 이루어졌다. 따라서 교육정책이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안정되어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며 교육열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의 양과 질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반다 지역에 살고 있는 릭비 종족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나 제정의 어려움으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기자재, 교육시설, 기관 등이

많이 부족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다.

2) 현황

(1) 가나

가나의 기본 의무 교육은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으로 이루어진다. 이 후 상위과정으로는 고등학교 또는 기술학교가 있다. 상위과정을 마친 뒤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다. 가나 사람들의 교육비는 평균 수입의 28~40%를 차지한다. 교육비가 생활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가나 사람들의 교육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나의 교육제도는 영국의 교육제도를 따르며 모든 교육과정이 영어로 진행된다.

(2) 반다 립비²⁹

반다 립비 종족의 교육정책은 가나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르고 있다. 기본 의무 교육도 가나의 교육정책과 같다. 그러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가르치는 과목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 학교의 경우 아랍어를 가르치고 반다 지역의 일부 일반학교의 경우도 립비 종족 학생들을 위해 아랍어를 가르친다고 한다. 국가 내의 모든 시험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과목으로 환경, 언어, 숫자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수학, 영어, 추이어, 시민권 교육, 정보통신 기술(ICT), 체육을 배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수학, 영어, 추이어, 정보통신 기술(ICT), 시민권 교육, 미술, 공통과학을 배운다. 중학교 학생들은 수학, 영어, 정보통신 기술(ICT), 공통과학, 추이어, 기초 디자인 기술, 사회, 종교와 도덕을 배운다. 각 학교에서는 3가지의 종교에 대해 배우는데,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슬람 학교에도 크리스천 교사가 있는데 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없다. 크리스천 교사들이 이슬람 학교에서 일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교사를 배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건립한 공립학교가 아닌 종교적 사립학교는 그들의 종교를 가르친다. 반다 지역에는 사립학교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정한 수업만 한다.

학교의 시작은 7시 30분부터 청소로 시작된다. 그리고 8시에 수업이 시작되고 보통 유치원은 12시, 초등학교는 1시반, 중학교는 2시 15분까지 수업을 한다. 종교가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나의 법 때문에 수업시간에는 기도할 수 없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고 학교 앞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금요일에는 이슬람 예배가 1시에 있기 때문에 학년에 상관없이 12시에 모든 수업이 끝난다.

남녀 학생수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자들의 경우 문화적으로 학교에

²⁹ 본 항목은 Central Bank website on redenomination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라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이전의 문화가 없어졌고, 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다 지역 내의 각 마을마다 1~2개의 학교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다. 학생 수에 비해 교사 수, 교육시설, 교육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학생은 200명이 넘는데 교사는 8명에서 16명이 있다. 교사는 정부에서 배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부에게 교사 지원을 건의해도 답이 없어 현재 교사의 수가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모든 학생에게 책상이 다 제공되지 못할 정도로 기자재가 부족하고 운동장, 교실 등의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컴퓨터실과 과학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비의 부담으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한다. 정부에서 책상, 교과서, 건물 자체, 학교 내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을 지원해 주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은 10세대의 교복과 3세대의 공책 등의 필기도구다. 세디는 화폐의 단위로, 1.05세디가 1달러 정도이다(2008, 6). 교복은 일년에 한번, 필기도구는 한 학기에 한번씩 사야 하는데 반다 지역 사람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한다. 가족이 겨우 먹고 살 정도의 돈으로 가정을 영위하고 있을뿐더러, 자녀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교육시킬 여유가 없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는 없고 실력이 좋은 아이들 먼저 보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꿈꾸는 아이들이 많지만, 실제 진학률은 매우 낮다. 그 이유 역시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지역 내의 대학교는 없고, 상급학교도 거의 없다. 시니어 스쿨, 즉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다니고 대학은 수냐니³⁰(브롱아하포주의 주도)와 쿠마시³¹ 등의 도시지역에 있는 대학에 간다고 한다.

3) 인식

반다 지역에 살고 있는 릭비 종족과 나파나 종족의 교육열의 차이는 거의 없다. 두 종족 모두 중학교까지 졸업하는 것이 목표이다.

도시에 사는 릭비 종족과 반다 지역에 사는 릭비 종족의 경우에는 두 지역 모두 교육열이 높지만 도시에 사는 릭비 종족의 교육열이 더 높다. 도시에 사는 릭비 종족은 다른 도시 사람들과 같이 좋은 곳에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반다 지역의 릭비 종족이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릭비 종족의 목적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문제는 첫째로 학생들은 열정이 있는데 교사의 수가 부족하고 교사의 열정과

³⁰ 수냐니(Sunyani)는 브롱아하포(Brong-Ahafo)주의 수도를 가리킨다.

³¹ 쿠마시(Kumasi): 아산티(Ashanti)주의 수도를 가리킨다.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사의 사명감이 부족한 이유는 교사란 직업이 적은 봉급으로 비 인기 직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대부분 2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사명감을 갖기 힘들다고 한다. 두 번째는 배고픔 때문에 1교시가 끝나면 집중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신발이 없어서 학교에 오고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운동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임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4) 요약

반다 지역 릭비 종족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높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다. 각 마을 당 교육 기관이 많이 부족하고 운동장, 책상 등의 교육 시설 역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생님 수가 부족하고 비인기 직종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도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릭비 종족의 가정의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8. 종교분야³²

1) 개요

반다 지역 릭비 종족은 종족끼리 마을을 이루어 살기 때문에 주위 다른 종족과 교류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들은 마을 별로 순수한 이슬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며 이들은 순니파 무슬림이다.

2) 종교현황

릭비 종족은 모두 무슬림이다. 그러나 그 중에 약 2%미만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도시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모스크는 보통 마을에 하나씩 있는데, 만약 마을의 인구가 늘어서 현재 존재하는 모스크만으로 모두 수용하지 못할 때 모스크를 늘린다고 한다. 종교 지도자의 수는 모스크의 수와 일치한다.

3) 종교특징

³² 본 항목은 Osman abubakal(보피에의 이맘, 40세)의 2009년 7월 10일 인터뷰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외적인 부분에서 순수 무슬림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적인 부분에서 마치 관습처럼 내려온 측면이 있어 결속력이 강하면서도 타 종교에 대하여 공격적이지거나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4) 종교지도자

릭비 종족은 이슬람교를 따르는데, 이슬람교의 종교지도자를 이맘이라 부른다. 릭비 종족은 모두 작은 마을을 이루어 분포하기 때문에 족장이 없고, 종교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모스크의 수가 두 개 이상이어서 이맘이 두 명 이상일 때, 이맘과 부이맘을 정해서 한 이맘이 다른 이맘을 따르도록 한다.

이맘의 보좌인을 나임이라 하는데, 이맘이 죽거나 모스크가 더 생겨 이맘이 필요할 때 나임이 이맘으로 승격된다. 나임은 마을의 원로들이 뽑는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은 사람을 뽑으며, 꾸란을 읽을 수 있도록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나이와 학력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키가 더 큰 사람을 뽑는다.

5)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

가나는 종족간 혹은 종교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종족이나 종교집단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은 없다. 다만 마을의 최고 권력자가 이맘이기 때문에 마을의 작은 문제들은 이맘과 원로들에 의해 해결 되며 큰 문제들은 가나 법을 따라 해결한다.

6) 요약

릭비 종족은 릭비 종족끼리 마을을 이루어 살고 또 가나의 남부와는 달리 교통도 불편해 다른 마을과의 교류가 적어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별로 없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슬람 외의 종교를 잘 모른다. 또 그들은 그들의 뿌리부터 이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을의 문화는 이슬람 문화를 따르는 비교적 순수한 무슬림이다. 마을이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을 위주의 공동체가 발달하게 되어 릭비 종족은 이슬람문화가 더 깊이 자리 잡히게 되었다.

그들이 순수한 이슬람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장기적이고 총체적이며 전략적인 선교방법이 필요하다.

9. 기독교 상황³³

1) 기독교 개요

가나는 기독교가 63.6%이며 개신교가 20.5%, 로마 카톨릭이 16.3%, 성공회 2.0%, 조합 교회파 30.3%, 그 밖에 30.9%로 구성된다.³⁴ 길거리에서 ‘God is good’, ‘Jesus is savior’라는 문구를 붙인 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과 인식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립비 종족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립비 종족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2) 기독교 현황

가나에서는 공용어는 영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추이어다. 하지만 립비 종족은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인 조고어를 사용한다.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영어와 추이어를 배워서 어느 정도 사용하지만, 다른 족과 교류가 적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은 대부분 조고어만 사용한다. 영어나 추이어로 된 성경은 있지만 립비 어로 되어있는 성경이 없어 립비 종족 복음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종족 언어로 된 예수영화나 기독교방송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립비 종족의 마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나파나 종족과 같이 사는 마을에는 교회가 있다. 하지만 그 곳에 다니는 립비 종족은 없다고 한다. 반다 지역을 위한 선교단체는 4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 립비 종족을 위한 선교단체는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3) 기독교 인식

립비 종족은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적개심을 품고 있지는 않다. 개종을 한다 하더라도 마을사람들이 그 사람을 크게 핍박하지는 않는다. 다만 마을의 모든 문화가 이슬람문화이기 때문에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전과 같이 유지 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에 대하여 가르쳐서 다른 종교로 개종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 하지만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³³ 본 항목은 Daniel(현지 목사님, 37세)의 2009년 7월 9일 인터뷰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³⁴ 본 내용은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4) 요약

교통이 불편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릭비 종족의 특성상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그만큼 적었을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의 접촉을 꺼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을 보면 타 종교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역적인 특성상 낙후되어 있는데, 총체적인 선교를 통하여 은연중에 있는 경계심을 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내부자운동 같은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IV. 가나 반다 지역의 현재 이슈들

1. 영어 교육의 확대

반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릭비 종족과 나파나 종족은 각각 조고어와 나파나어를 사용한다. 조고어와 나파나어는 많은 부분 유사점을 갖고 있는 언어로 100년 이상에 걸쳐 사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종족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고어나 나파나어를 사용하여 접근해야 했다. 가나의 공용어인 추이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드물기 때문에 종족과 교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 초등 교육 과정과 중등 교육 과정에서 영어 교육이 확대 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도 영어를 배우고 있으며 젊은 층에서도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어 사용의 증가는 기존에 있었던 언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선교적 이점으로 작용될 것이다.

2. 농업 기술, 기구의 부족

릭비 종족은 주로 농사를 짓는데 주요 재배 작물은 얌이다. 얌은 다년생 식물로 일년 이상 농사를 통해 나오며 고구마와 감자의 중간 정도의 맛을 가진 식품이다. 하지만 릭비 종족은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 방법과 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조사팀은 인터뷰 도중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농사 짓고 있는 토양, 기구,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해결책과 함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생산물의 증대를 통해 생기는 잉여 생산물로 인한 부수적 효과, 마을 간의 교류나 도시에서의 장사 등의 접근을 통한 선교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3. 물 부족

릭비 종족은 필요한 물을 펌프를 통해 공급받는다. 각 마을 별로는 펌프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마을에 있는 펌프에서 물이 마르고 있다. 계절에 따라 생기는 영향도 있겠지만 보피(Bofie)지역에 있는 6개의 펌프 중 2개가 사용할

수 없고 베마(Bema) 지역은 4개 중 1개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 가나에 1월에서 2월에 하마탄 기단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진다.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며 심할 때에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기본적인 생활 환경 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는 이들을 총체적 선교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조사팀이 보피(Bofie) 지역을 방문했을 때 수 많은 아이들이 물 한 통만 달라고 말했다.

V. 립비 종족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1) 선교의 역사³⁵

가나는 해안 선교 시절에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복음화가 이루어 졌다. 그로 인해 남부 지역은 복음화가 되었지만 북부 지역은 아직도 이슬람의 영에 묶여있다. 가나에서 선교하고 있는 단체는 70단체로 23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선교사의 수는 400명 정도로 미국이 228명, 영국이 41명 나이지리아 36명, 독일 27명, 한국 25명 순이다.

그러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립비 종족은 소외되어 있는 소수 민족이어서 선교의 역사가 없다.

2) 국제 및 한국 사역단체(NGO 포함)의 활동현황

국제 및 한국 사역단체의 활동은 전혀 없다. 반다 지역을 섬기고 있는 사역단체가 4개 정도 있으나 립비 종족을 대상으로 섬기는 사역단체는 없다. 립비 종족이 반다 지역에 정착한 이래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교활동은 가끔 미국에서 오는 의료 봉사활동 정도이다. 그 밖의 다른 사역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3) 영적 상황

반다 지역 립비 종족은 순수한 이슬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이슬람은 종교이기 이전에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뿐만 아니라 미신의 문화도 그들의 사상 가운데 많은 부분 자리잡고 있다.

2. 립비 종족 선교의 방해요소

³⁵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2권 제1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 종족 외부적 방해요인

(1) 지리적 상황

릭비 종족이 살고 있는 반다 지역은 지리적으로 많이 동떨어져 있다. 다른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접촉점이 거의 없고, 교통수단도 불편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화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바로 옆에 높은 비율의 크리스천 나파나 종족이 살고 있지만 나파나 종족 역시 릭비 종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릭비 종족과 나파나 종족은 외부 문화로부터 도태되어 오랫동안 살아왔다. 서로 다른 종교를 몇 백 년 동안이나 인접한 마을에서 지키고 보존해왔다. 서로 복음을 전파하거나, 전도하는 등의 선교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 각자의 종교적 상태를 자연스레 인정하며 안정적으로 지내왔다. 또한 타 지역에서는 릭비 종족에게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현지에서 살면서 사역하는 것이 좋지만 주변 환경상 쉽게 결단하기란 어렵다. 또한 비거주 사역을 할 경우 접근이 편리하지 않은 지역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접한 지역에 크리스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선교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지리적으로 도태되어 있어 복음이 닿기 힘든 점이 선교 활동에 있어 장애물로 여겨진다.

2) 종족 내부적 방해요인

(1) 이슬람 문화

반다 릭비 종족은 순수 이슬람 공동체로, 북아프리카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무슬림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곧 이슬람 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이슬람만을 고집하며 지켜온 그들에게 이슬람은 전통과도 같이 꼭 보존되어야 할 존재이며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전통을 부인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개종할 경우, 집단 내의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지만 이전과 같이 원활하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종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 릭비 종족은 단순히 종족의 개념을 넘어 종교로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거의 힘들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전통으로 여겨지는 집약적인 이슬람 문화는 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여진다.

(2) 언어

릭비 종족은 조고어라고 불리는 종족 언어를 사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조고어를 익히고 있어야 가능하였다. 그러나 릭비 종족이 거주하고 있는 반다 지역에 영어 교육 증가되면서 어린이, 젊은 층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언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젊은 연령 대, 특히 남성들을 제외한 여성, 노년층에게는 종족 언어를 사용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영어를 사용할 줄 모르고 단지 종족 언어를 이용해 의사 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언어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복음을 전파할 경우 마을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전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존선교활동의 한계

(1) 사역자 부재

지리적인 이유, 환경적 이유, 언어의 문제, 이슬람 문화 등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립비 종족 내에는 사역자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립비 종족에게는 이슬람 외에 다른 어떠한 종교와도 접할 기회가 없었다. 사역자 없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나 강력한 이슬람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립비 종족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현재까지 사역자의 부재는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던 큰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2) 자료의 부족

반다 지역의 립비 종족에 대한 자료는 극히 드물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존 자료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의 내용들은 립비 종족을 위해 사역하는데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3) 장기사역의 어려움

반다 지역에서 장기로 사역하기에 어려운 점들을 보인다. 교통편, 음식, 주거 등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적응하기가 힘들다. 타 문화와의 교류도 없는 지역에서 환경의 개선이 이뤄지기란 쉽지 않다. 또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슬람 문화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기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립비 종족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1) 기존 방해요소들의 변화

릭비 종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교통편도 여의치 않아 접근이 어렵다. 그로 인해 선교사님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본 조사팀이 반다 지역의 여러 마을을 순회하는 도중 도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도시로 나갈 수 있게 공공 수단인 튜로튜로가 다니고 있었다. 도로와 교통 수단이 좋아질수록 반다 지역에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본다.

릭비 종족은 오랜 과거부터 이슬람을 믿어온 종족으로 삶 자체에 종교적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팀이 장년층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종족의 종교적 모습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현된다고 보다는 조상의 모습을 습관적으로 따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릭비 종족에게 이슬람은 삶의 바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혼을 할 때도 종교를 살펴 피며 순수한 이슬람 종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다. 릭비 종족이 살고 있는 마을들이 거의 이슬람인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상들이 몇 백 년에 걸쳐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2)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

(1) 의료

릭비 종족이 살고 있는 반다 지역은 사바나 초원 지대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곤충들이 존재하며 특히 모기들로 인해 말라리아에 걸리기 쉽다. 본 조사 팀 역시 7명 중 4명이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였다. 질병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과 더불어 소규모로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각 마을에는 병원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마을들은 차를 통해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리는 거리를 두고 있기에 먼 지역에서는 병원 접근이 어렵다.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이라기 보다는 병원을 갈 수 있는 교통편과 더불어 병원이 위치한 곳의 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근처 지역 병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을 맺은 다음에 먼저 한국 교회나 선교협회의 후원을 통해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한다. 그리고 이 차를 이용해 마을 별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그와 동시에 복음을 전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의료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총체적 선교의 관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교육

반다 지역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 지역으로 교육 여건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반다 지역 내에는 고등학교 과정인 시니어 하이 스쿨(Senior High School)이 없다. 가나에서는 공립 교육기관의 경우 종교가 교육을 방해할 수 없고 각 종교

를 평등하게 대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 학교로서 시니어 하이 스쿨(Senior High School)을 설립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도 반다 지역 내의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해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각각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중등 정도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통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마을 별로 소규모 공부방을 만들어 학업과 함께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물

릭비 종족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면 전기라든지 물, 식량 등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 보인다. 물 같은 경우 각 가정의 수도를 통해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닌 마을 별로 펌프를 사용해 지하수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조사팀이 방문했던 지역들은 지하수가 마르고 있었다. 베마(Bema)지역은 4개의 펌프 중 1개가 말랐으며 보피에(Bofie)지역은 6개의 펌프 중에 2개가 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마탄 기단이 오는 기간이 되면 지하수가 더 많이 말라 물을 구하기 어려우며 비를 통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 릭비 종족은 아마 불타강을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펌프의 배수 체계를 개선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펌프나 수도 공급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4) 농사법, 농사기구

릭비 종족의 대부분 얀(YAM)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릭비 종족이 거주하는 반다 지역은 농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본 조사 팀이 보피(Bofie) 지역에서 인터뷰할 때 농사법과 농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농사법을 개발하는 것과 농기구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반다 지역의 사바나 대초원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실제 농사에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공사례

(1) 기존 선교사의 선교전략

본 조사팀의 정보에 의하면 반다 지역에는 타 국가의 선교사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현지인밖에 없다. 이분들은 이웃과 교류를 통해 친분을 쌓아 관계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두 분의 현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두 분 모두 이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다. 또한 본 조사팀이 반다 지역을 조사하

던 도중 현지 목사님으로부터 미국에서 의료 선교단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미국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의료 선교가 이뤄지고 있었다.

(2) 기존 성공 전략

릭비 종족은 반다 지역에 정착할 때부터 이슬람 문화를 유지해 왔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릭비 종족은 순수한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길 원하고 있으며 몇 백 년에 걸쳐 내려온 이와 같은 현상은 쉽게 바뀌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팀이 조사한 바로는 릭비 종족을 대상으로 한 선교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목사님들은 그들과 삶의 교제를 통해 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같은 방법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전도 형태이다.

(3) 다른 종족을 통한 복음 전파

릭비 종족과 바로 가까이 나파나 종족이 살고 있다. 이들은 5분 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따로 살거나 한 마을 내에서 앞 쪽은 나파나 종족이 살고 뒤 쪽은 릭비 종족이 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눈 여겨 볼만한 것은 나파나 종족은 크리스천이고 릭비 종족은 무슬림이라는 것이다. 짧게는 100년, 그 이상으로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릭비 종족과 마찬가지로 나파나 종족 역시 역사적으로 본래 기독교를 갖고 있는 종족인 것 같다. 이 균형을 고려해 현지 나파나 종족을 통한 복음 전파 방법 또한 한 가지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릭비 종족의 선교전략 제언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릭비 종족은 이슬람을 고수해오고 있지만 현재 가나에 있는 23개국에서 온 400여명의 선교사들 중 릭비 종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반다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4단체가 있지만 릭비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단체는 없다. 이러한 릭비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부재는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 고착된 이슬람 문화, 언어의 한계로 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로의 재정비와 릭비 종족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연결되는 교통편의 증가로 지리적 방해요소가 사라지고 있고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젊은이들 층에서 영어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언어적인 사역의 어려움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본 조사팀의 반다 지역 현장 조사를 통해 의료, 교육, 물, 농사법과 같은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미 복음화된 나파나 종족이 반다 지역에 릿비 종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단기선교팀과 현지인 사역자들의 사역 경험은 릿비 종족에 대한 선교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릿비 종족에 대한 선교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릿비 종족의 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자 운동과 반다 지역에 필요한 의료, 교육, 물, 농사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선교를 진행하는 한편 이미 복음화되어 있으며 반다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익숙한 나파나 종족을 통해 릿비 종족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종족이나 문화와는 교류가 없었으며 500년간 이슬람 문화를 고수해온 릿비 종족을 향해 이러한 종족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선교전략이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대상별 전략 제언

(1) 어린이, 청소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통 오후에 할 일이 없다. 학교가 끝나면 보통 1시나 2시정도가 되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마땅히 할 일을 갖고 있지 않다. 주로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아니면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이 오후 시간에 갖는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과 같이 놀거나, 놀이 문화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공부방 같은 것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좀 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만남과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함으로써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이외에도 성경 공부와 같은 신앙 공부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년층

장년층들은 대부분 얌(Yam)농사를 짓고 있었다. 얌(Yam)은 가나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릿비 종족의 장년층들은 얌을 재배하여 자급자족의 형태로 먹거나 시장에 판다. 그러나 얌은 다년농산물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수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팀이 보피에 지역에서 장년층 분과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얌을 재배하는 기간이 끝나면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이 기간을 노려 장년층이 종사할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거나 아니면 이 기간 동안 이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이들과의 관계를 갖고 이것들을 통해 장년층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릿비 종족은 무슬림으로써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들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가능할 것이다.

(3) 노인층

릿비 종족은 의료 시설을 쉽게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이 말을 의료 시설

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병원까지 갈 교통 수단이 드물게 있어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자유롭더라도 교통 수단을 타기 위해서는 5~20km 정도를 걸어서 나가야 하는데 이 일을 하기에 힘들다. 만약 병원에서 차를 통해 이들을 데려오거나 또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살피고 관계를 맺는다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이뤄질 수 있는 전략이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한 선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3) 분야별 전략 제언

(1) 나파나 종족의 선교

반다 지역 내의 릭비 종족과 함께 거주하는 나파나 종족은 크리스천이다. 그들은 릭비 종족과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 몇 백 년 동안 같은 지역에 살아왔음에도 릭비 종족은 순수한 이슬람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파나 종족의 신앙의 부흥을 통해 릭비 종족에게 자체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성령 사역으로 릭비 종족에 대한 직접적인 선교보다는 간접적인 선교를 통해 반다 지역 내의 복음의 진리가 밝혀지며 전파가 이뤄질 것이다.

(2) 농업

릭비 종족은 얀(Yam)농사를 짓는다. 본 조사팀이 방문했을 때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의 농사법과 농사 기구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본 조사팀이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방법이 사용되기에 앞서 반다 지역의 토양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새로운 농사법이 개발되고 다른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다면 기존의 얀 생산량을 증가시켜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농작물의 재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선교 방법은 복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이 부족한 이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하기에 여기에 적었다. 남성들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같은 선교적 접근이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게을러지기 쉬운 환경에 놓인 남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내부자 운동

릭비 종족의 이맘은 마을 주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간단한 실례로 본 조사팀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맘의 말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적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들이라고는 하나 그 문제들의 해결의 중심에는 이맘이 있으며 마을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다.

사실 이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 마을의 주민들을 전도한다면 그 소식이 이맘에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때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음의 문이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이맘의 영향력을 반대로 활용하기에는 내부자 운동이 적격으로 보인다. 이맘의 회심을 통해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대한다.

(4) 문화 교류

릭비 종족이 사는 곳 바로 옆에 나파나 종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몇 백 년의 기간 동안 교류 없이 각각의 종족 집단으로 존재했다. 나파나 종족은 대부분이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복음의 접촉점이 생겨 날 것으로 보인다. 반다 지역 전체의 릭비 종족과 나파나 종족의 교류는 교통 수단의 어려움으로 힘들겠지만 보피에 지역과 같이 한 마을에 나파나 종족과 릭비 종족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나 베마 지역과 같이 5분 거리에 나파나 종족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반다 지역에는 도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통 환경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

축구를 통한 교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릭비 종족 만이 아닌 나파나 종족까지도 합해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정도 축구 대회를 가짐으로 교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팀이 방문했을 때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축구 축제와 함께 음식 축제도 같이 병행한다면 경쟁의 모습보다는 같이 화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임을 통해 나파나 종족과의 교류를 넓힐 수 있고 나파나 종족과의 교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현지교회 개척 전략

(1) 전도의 방향성

릭비 종족은 이슬람을 믿고 있기에 가족 단위의 전도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슬람의 가부장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 홀로의 개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릭비 종족은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후원을 통한 전도 방법을 살펴볼 수 있겠다. 물 공급, 농사, 교육 등 부족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전도 방법으로는 내부자 운동을 통한 마을의 이맘을 전도하는 경우다. 마을에서 이맘은 높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맘의 회심은 마을 전체의 복음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 현지 지도자 양성

립비 종족은 각각 개별적인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때문에 각 마을을 이동시키지 않는 한 그 마을을 섬길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베마(Bema)나 브롱하니(Bronghani)같이 고립된 지역은 특히나 더 그렇다. 반다 지역의 중심부인 반다 아힌크루에는 립비 종족과 함께 나파나 종족이 함께 지내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독교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곳의 현지 목사님들이 관계 맺기를 통한 전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곳에서 립비 종족의 청년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각 마을로 파송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각 마을에 있는 청년을 개종시키는 것인데, 이맘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무슬림 리더들이 있다. 이 리더들이 개종된다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나파나 종족과 같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본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가나의 릭비 종족의 일반 현황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을 알아보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릭비 종족을 위한 선교 전략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릭비 종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요약하자면 그것은 그들이 가나 중서부의 사바나 대초원 지역에 살고 있는 소외된 종족이라는 것과 무슬림이라는 것이다. 릭비 종족은 소외되어 거주하고 있기에 거의 자급자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슬람의 문화는 릭비 종족의 사회적 규범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

오늘날 전보다 많은 수의 릭비 종족이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갖고 생활하고 있지만 반다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릭비 종족은 과거의 생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현재 반다 지역 내의 마을들의 물이 말라가고 있으며 그 현상은 하마탄 기후가 올 때 더욱 심해진다. 그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 또한 열악해 병이 생길 경우 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기가 공급된다고는 하나 TV, 라디오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외부의 소식을 듣기가 어렵다. 가나에는 신문의 배달 문화가 존재하지 않아 신문을 통해 소식을 듣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또한 반다 지역 내에는 고등 학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낮은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

릭비 종족의 이와 같은 상황은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선교사님들과 많은 중보기도자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나의 남부는 기독교 북부는 이슬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서부의 위치한 릭비 종족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반다 지역, 멘지 지역의 복음화 시키며 더 나아가 가나의 복음화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릭비 종족을 통해 가나가 복음화되고 서아프리카의 복음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 보고서에 비전을 담아본다.

〈참고문헌〉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 4권 제1호』 (포항: 국제지역연구소, 2009)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2권 제1호』 (포항: 국제지역연구소, 2007)

기독뉴스, www.gidoknews.com

두산백과사전, www.encyber.com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net

위키백과사전, www.wikipedia.org

주한가나대사관, www.ghanaembassy.or.kr/kor

컴퓨터 전문인 선교회, www.goodnews.co.kr

한국가나선교회, www.kr.blog.yahoo.com/josepyee

한국브리태니커회사 세계사연표, www.timeline.britannica.co.kr

Bank of Ghana, www.ghanacedi.gov.gh

Bethany World Prayer Center, www.bethany.com

CIA, www.cia.gov

Encyclopedia of the Nations, www.nationsencyclopedia.com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www.iss.co.za

U.S. Geological Survey, www.usgs.gov